

## 품질 좋은 병아리 생산, 공급에 최선을



### ▲ 고도욱 대표

1978	천안연암축산대학 졸업
1979 ~ 1988	기릉농축 생산부장
1988 ~ 1996	풀그린식품(주) 계열화사업부장
1996 ~ 2006	체리부로식품(주) 이사(생산, 영업, 사육)
2007 ~ 2009	계영농산(주) 총괄 상무
2009 ~ 현재	한국원종(주) 대표

그년 초 (주)한국원종의 신임 대표로 고도욱 계영농산(주) 상무가 취임하면서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신임 고도욱 대표는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본고는 새로 부임한 고도욱 (주)한국원종 대표를 만나 향후 추진방안 및 업계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아바에이카 인기 높아져

종계업 발전을 위해서는 병아리 품질과 시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는 고도욱 대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예방접종 선발로 면역력이 강한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주)한국원종은 지난 2002년 10월 다양한 품종을 소비자(PS농가)들에게 공급하고 독주 체제로 흐려지던 종계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취지 아래 설립, 아바에이카를 주 품종으로 국내에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아바에이카의 2008년도 종계 공급비율을 보면 전체 공급중 25.2%를 차지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D라인 기준으로 한국원종의 원종계

(GP) 규모는 34,000수이며, 연간 종계(PS) 분양수는 170만수에 달한다. 자체 부화장 또한 설립, 가동하고 있는데 발육기는 92만개, 발생기는 15만개로 레이저 디비커가 부착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병아리는 차단방역이 완벽하고 시설이 우수한 종계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데 보령시 천북면에 3만수 규모의 육성농장과 천북면 장오리에 5만수 규모의 성계농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해 나가고 있다.

### 30여년의 양계 노하우

고도옥 대표는 1987년 충남 연암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룡농원에 입사하면서 양계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곳에서 닭 사양 및 부화기술 등 실무 경험을 쌓았고, 1979년에는 풀그린식품에서 계열회사업 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6년부터는 현재 (주)한국원종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체리부로식품(주)에 몸을 담고 사육분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체리부로(주)의 자회사인 계영농산의 총괄 상무를 맡아 일해 오는 등 일선 현장의 사육업무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양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회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고도옥 대표가 한국원종에 몸을 담게 되면서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지분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처음 설립 당시 한 품종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순수한 뜻으로 출범한 한국원종이 농가를 중심으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되면서 현재 21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체리부호가 지

난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분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고도옥 대표는 현재 주주 가운데 종계장을 운영하지 않는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주식을 인수, 명실상부한 육용종계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 우수한 병아리 공급에 최선

고도옥 대표는 지난해까지 불황이던 종계업계가 연말부터 병아리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금까지 호경기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경기 이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쿼터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고도옥 대표는 원종계 쿼터제 보다는 종계 쿼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원종계 쿼터제를 시행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설명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실용계 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종계부터라도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도옥 대표는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병아리를 공급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전제하고 “농가의 경우 표준화된 농장을 만들어 좋은 종계를 통해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원종이 적극 협조해 가겠다.”는 포부와 바람을 밝혔다. 또한 고도옥 대표는 고급 닭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양질의 병아리를 공급하여 양계농가들에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주)한국원종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을 다짐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